

## 타지키스탄의 장기집권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

윤영민, 이향림, 오진희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                   |                     |
|-------------------|---------------------|
| I. 서론             | 4. 경제적 요인           |
| II. 이론적 검토        | 5. 국제적 요인           |
| III. 장기집권 강화요인 분석 | IV. 선거를 통한 장기집권의 구축 |
| 1. 역사적 요인         | 1. 정치관련 법규와 선거      |
| 2. 사회·문화적 요인      | V. 결론               |
| 3. 법적 / 정치적 요인    |                     |

### I. 서론

1991년 소연방에서의 독립 후 20여년, 현 대통령인 에모말리 라흐몬(Rahmon, Emomalii/Rahmon, Эмомалӣ)은 1992년부터 17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행론 연구에서 타지키스탄을 독재국가로 분류<sup>1)</sup>하는 것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20년에 가까운 1인 집권 현상은 타지키스탄의 정치체제가 독재적 권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독립국 중 유일하게 독립 후 내전을 겪으면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타지키스탄의 내전이 몇 십년간 지속된 전쟁은 아니었다. 하지만 독립 후 새로운 국가 기틀을 마련해야 할 순간에 발발한 내전은 타지키스탄 국가 발전에 치명적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도 미비하여 독립 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타지키스탄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은 점차 비교적 안정된 국가 체제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비록 빈곤국가로써의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타지키스탄이 현재만큼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고, 국가 발전에서 라흐몬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흐몬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는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뒷받침 되어있다. 내전으로 인해 고통 받던 국민들에게 라흐몬 대통령은 내전을 종결시킨 국가적 영웅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국민들은 다시는 내전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흐몬 대통령을 위협하는 다른 정치

1) Mariya Chelova, 「Explaining regime outcomes in the former Soviet Union(FSU) states : a structure-based model」, Humboldt Univ., 2008, p.6.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는 라흐몬 대통령이 무려 17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또한 라흐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정치 세력들을 탈바꿈 시켰다. 라흐몬 대통령 이전 정치 세력이었던 후잔트 인물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쿨랍 지역 인물들을 주변에 두었고, 법적 제도를 통해 타지키스탄 내에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를 도모하여 라흐몬 대통령 자신의 장기 집권 체제를 지속시켰다.

중앙아시아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제 2의 중동’으로 불리는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타지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변국에 비해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만큼 타지키스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재 국가로 그 연구적 가치가 있는 반면 타지키스탄만은 역시 이러한 관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라흐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내전을 겪은 독특한 역사 등 주변국과는 다른 타지키스탄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각 부문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II. 이론적 검토

타지키스탄의 독재권력 유지와 그 동력에 대한 독립적인 실증연구나 이론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독재권력 혹은 권위주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연구를 검토하여 본 글의 분석적 틀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독재권력 지배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소수의 권력그룹이 대중의 합의 없이 압도적 다수의 대중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가이다.<sup>2)</sup> 이러한 독재권력의 구조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행위자 중심의 분석과 구조주의적 분석, 또는 유물론적 시각과 제도주의적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위자 중심의 분석은 독재권력을 구성하는 독재자와 그 권력 내의 권력 엘리트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엘리트 집단과 대중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합리주의 혹은 유물론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엘리트간, 엘리트와 대중간 역동성을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따라 설명한다. 이들은 독재국가에서의 제도는 실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제도주의적 접근이 독재권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본다.

반면 구조주의적 분석은 독재권력의 형성과 유지를 독재자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침투 정도, 제 3국에 대한 의존정도, 정치군사제도 형성기의 특징 등에 주목하여 설명한다.<sup>3)</sup>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환경적 요인들이 독재권력의 형성과 유지를 특정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 제도주의적 분석은 정치적 활동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제도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선거, 법제, 정당과 같은 유사민주주의(quasi-democratic) 정치제도들이 정권의 지속성과 형성에 기여한다고 본다.<sup>4)</sup>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을 보완하는 최근의 시각은 자기 강화적 연합(Self-enforcing coalition)<sup>5)</sup> 또는 자기 강화적 경로의존성(Self-enforcing path dependence)<sup>6)</sup> 등의 개념으로 독재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2) Tomas B. Pepinsky, 「Durable Authoritarianism as a Self-Enforcing Coalition」, Univ of Colorado-Boulder. 2008, pp.1-5.

3) 한병진,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2009, Vol.15, issue.1, pp.121.

4) Tomas B. Pepinsky, 2008, pp.2~3

5) Tomas B. Pepinsky, 2008, pp.4~5

6)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다. 이는 독재권력의 행위자가 그 기회비용에 따라 구조적 조건에 편승 내지는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선 두 가지 시각의 절충을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Tomas B. Pepinsky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그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형 설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불가피한 단순화 과정을 거친다는 면에서 아직 독재권력 연구가 발달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부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들은 각각 행위자간의 역동성과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기인한 정치환경, 제도, 외부환경 등의 요소가 독재권력 형성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시적이고 모델분석적인 틀에서 타지키스탄의 독재권력을 살펴보는 것은 그 특징에 의해 몇 가지 제약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지 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성이 그것이다. 타지키스탄은 국제적 기구에서 종합하는 데이터에도 누락이 있을 만큼 현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국가이다. 정부의 공식 자료나 언론을 통한 현지정보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발전된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기 힘들다. 따라서 행위자 중심의 연구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권력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들 수 있다. 정보의 접근제한성을 생각하자면 북한과 같이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국가도 생각할 수 있으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그 짧은 독립과 정권의 역사가 제도적 변화나 현존해온 제도와 환경에 대한 분석만으로 독재 권력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적 경험, 문화, 경제, 제도 등과 같은 국내적 환경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국외적 요소 등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주요 정치집단과 행위자 간의 세력관계를 살펴보는 행위자 중심의 분석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분석은 자기 강화적 연합(Self-enforcing coalition)과 같은 접근법과 관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모델화 과정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분명 이러한 모델화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한 분석의 추상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본 글의 목적이 타지키스탄의 독재 원동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시도라는 점과 상기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제한사항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접근이 더욱 유용할 수도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구성하는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타지키스탄은 중국, 러시아, 투르크(터키), 중동 등에 둘러 쌓인 중앙아시아 국가로서의 보편성을 가짐과 동시에 소련방 시절의 공화국 독립, 연방 붕괴와 독립 후 내전의 경험 등과 같은 특수성을 갖는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정치의 특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Clan정치문화가 남아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상의 문화인자 또한 가지고 있다.

5장에서는 헌법과 정치관련 법규와 이의 현실적 적용을 분석해 법제도적 요소가 독재권력 유지를 강화해 나가는지, 형식적인 제도의 유지인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현존하는 정치세력과 인물 등 행위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위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한다.

7장에서는 독립이후 경제개황과 경제상황이 독재권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살펴본다.

8장에서는 이른바 ‘신 거대게임’장이라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속에서 타지키스탄의 대외 관계와 대외 요소들이 국내 정치권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Ⅲ. 장기집권 강화요인 분석

#### 1. 역사적 요인

##### a. 역사적 유물

고대사를 통틀어 1929년 소연방에 의해 타지키스탄 연방 공화국이 될 때까지,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특징은 독립된 타지키스탄만의 국가를 형성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유목민족 제국사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다가 19세기 중반이후 러시아에 복속됐다.<sup>7)</sup> 아시아, 중동, 투르크, 러시아 등 수많은 문명과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타지인들의 기원은 아리안족에서 파생한 소그드인에 있다. 기원전 12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흑해 북부 지역에서 카프카즈 산맥을 넘어 남하하여 인도북부지역에 한 집단이 정착하였고, 또 한 집단이 지금의 타지키스탄 지역에 정착한 것이다.<sup>8)</sup> 기원전 6세기경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아케메니드조 페르시아제국은 서북쪽으로 팽창하여 소그드인들을 예속민으로 삼았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아케메니드조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 그리스 문화에 노출되기도 했으며, 기원전 250년 정도에는 이 지역이 유목민족인 파르티아족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기원전 224년경 파르티아 제국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다. 이 지역에 대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지배는 7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어 페르시아 문화가 타지인들의 조상에게 전파되었다.<sup>9)</sup> 7세기에 투르크에 의해 점령당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의 문화는 점차로 투르크화되었다. 8세기에는 중동 아랍인에 의해 타지크 족은 정복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타지크 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sup>10)</sup> 이슬람교는 조로아스터교를 빠르게 대체해 나갔으며, 정교일치의 통치체제, 아랍어의 생활 침투 등이 빠르게 나타났으나, 오랜 기간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페르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sup>11)</sup> 타지인들은 9세기 후반에는 페르시아계 사만조의 통치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에 페르시아어를 기반으로한 타지어가 발전해나갔고 사만조의 통치하에 타지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만조의 지배시기에 현재 우리가 부르는 ‘타지크’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사산조에서는 이라크에 거주하던 ‘타이’라는 종족에서 유래하는 ‘티지크’라는 말로 아랍인을 통칭했다.<sup>12)</sup> 그 후 14세기경 ‘타지크’는 중앙아시아의 이란계 무슬림을 지칭하는 말로 정착되었으며, 16세기 초 이란에서 세워진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함으로써 수니파 이슬람을 주로 따르던 타지인들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란 본토와 떨어져 독자적인 타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sup>13)</sup>

10세기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투르크계 왕조의 팽창이 시작되었는데, 999년 사만조는 투르크계 가즈나브조에 의해 멸망했고 1040년경 가즈나브조는 셀주크에 멸망되어 타지 민족은 셀주크의 지배를

7) 정세진, 「타지키스탄의 민족 정체성연구 -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학국이슬람학회논총, Vol.18, issue 1, 2008, pp.254.

8) 김대성, 「소련 해체이후 강대국의 現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중동학회, 1999, p. 252.

9) 김대성, 1999, p. 254.

10) 정세진, 2008, p. 257.

11) 김대성, 1999, pp. 254-256.

12) 고마츠 히사오, 이평래 역,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2005, (서울 : 소나무), p. 174.

13) 신양섭, 「타지민족의 성립과 사만조의 문예부흥」,

받게된다. 이 후 1220년 이 지역은 몽골에 의해 점령되어 타지인들은 몽골족의 지배를 겪게되고 14세기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거쳐 19세기까지 우즈벡 민족의 제국인 부하라 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타지인들은 이 시기의 우즈벡인들과의 동화된 삶과 16세기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투르크 세력의 영향으로 투르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sup>14)</sup>

19세기 초반부터 제정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팽창을 시도해 19세기 말에는 현재의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 대부분을 영향력 하에 두었다. 타지인들은 이때에도 독립된 민족이 아닌 부하라 칸국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으며, 10월 공산혁명 이후에도 우즈벡 공화국에 속한 자치공화국(Tajik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 TASSR)으로 편입된다.

### b. 소연방 지배의 유물

1924년 우즈벡 공화국의 일부로 소연방에 가입된 타지키스탄은 1929년 자치공화국에서 타지키스탄 연방공화국(Tajikistan Soviet Socialist Republic : TSSR)으로 승격된다. 소연방의 소연방 시기 타지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민족분리/통치 정책을 겪게 되는데, 타지인들의 전통적 거주지이자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우즈벡 공화국에, 우즈벡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코잔드 지역은 타지키스탄 공화국에 귀속되었다.<sup>15)</sup> 타지키스탄의 소연방 지배와 민족지배정책 경험은 독립 후 독재권력의 유지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련의 민족 정책은 중앙아시아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화, 의식, 엘리트들의 저항성을 진압하는 일련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sup>16)</sup> 소비에트는 도시지역에서 민족적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들을 발굴하지 않았고 이러한 요인은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의 내전이 지역주의와 연관되어 발생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7)</sup> 즉 소연방의 지배정책은 타지키스탄에 지역주의적 의식을 강하게 형성 시켰고, 이는 내전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독재권력의 강화 요인이 되고 있다.

### c. 독립과 내전의 시기

1991년 9월 9일 타지키스탄은 소연방에서의 독립을 선언하며 역사상 최초로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소연방시절 국내적으로 누적된 갈등요인들로 인해 1992년 6월부터 내전을 겪게된다. 타지키스탄은 펠레스트로이카 말기부터 보수적인 공산당 세력과 이에 대항하는 라스타히즈 등 민족주의 조직, 민주당, 이슬람 부흥당을 비롯한 반대파 연합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sup>18)</sup> 타지키스탄 내전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중앙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지역-인종적 당파갈등, 그에 따른 경제적 부의 독점과 그에 기인한 빈부격차의 심화가 그것이다.<sup>19)</sup> 즉, 당시 권력층과 반대세력의 갈등은 독립 후 경제적 붕괴를 배경으로 지역-인종 과별을 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과별은 상당부분 소연방시기의 민족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1924년 소연방의 '중앙아시아 민족의 경계 획정' 작업을 통한 타지키스탄 내의 구역 획정에 따른 지방과별, 즉 클랜의 형성이 그것이다. 클랜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14) 정세진, 2008, p. 257.

15) 김대성, 1999, pp. 261.

16)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National Identity between Tradition and Reflexive Modernisation: the Contradictions of Central Asia, Nationalities Papers, Vol. 3, No. 1, 2001, p. 30.

17)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2009, p.125.

18) 고마츠 히사오, 이평래 역, 2005, p.477.

19) 장병욱, 「타지키스탄 내전과 평화과정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27권 2호, 2008, pp. 149-150.

다루겠지만, 타지키스탄의 내전은 정치, 경제 권력 분배를 독점한 공산당 세력 파벌과 그 외 파벌간의 대립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뜨거운 2월’사태라고 불리는 소요사태를 시작으로 내전의 양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피해 수많은 아제르인들이 유입됐고 정부가 지역주민을 희생시켜 이들에게 주택 등을 제공했다는 유언비어에서 시작된 이 소요사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인해 갈등양상을 더욱 악화시켜 나갔다. 폭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와 반대세력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1991년 11월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쿨랍-코잔드 연합에 의해 선출된 나비예프 대통령은 반정부세력에 대한 무력진압을 이어나갔고, 5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폭력사태가 속출하게 된다. 그 해 12월까지 정부군과 반군간의 격렬한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내전은 교착과 갈등상태를 반복하며 1997년에 가서야 러시아의 중재와 평화협정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6만 명의 전사자와 53만 7천여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4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인한 엄청난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다.

[표 1] 타지키스탄 역사

시기	약사
BC 6C	타지크사회 원시공동체의 사회 -> 노예제 사회로의 이행기(페르시아 제국에 속함)
BC 4C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정복됨 -> 이 제국의 분령 후 구레코 박트리아에 속함
7C	투르크에 의해 점령당함. 문화는 점차 투르크화 됨
8C	중동 아랍인에 의해 정복당함. 타지크인들의 이슬람 개종
9C 후반	사만왕조 (수도 부하라)
10C 후반	투르크족에 의한 멸망
13C	몽골의 칭기스칸에 의한 점령
14C	티무르제국에 의해 지배당함 -> 이 시기에 성립된 '우즈베크 칸'에 19C 후반까지 지배당함 (독립국가를 성립하지 못함)
16C 이후	* 투르크족의 강력한 등장으로 타지크는 페르시아 문화권으로 부터 소외당함 * 타지크 민족이 '쉬아'파 보다 '순니'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배경임 *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있지만, 수세기 동안 우크베크 민족과 동화되어 거주함으로써 투르크 문화권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음
19C 중엽~후반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팽창정책추진(중엽부터) 19C후반(1895년)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감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될 때 투르크공화국의 일부가 되어 러시아 공화국 연방에 속함
1924년	부하라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 부하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재편성 될 때, 소연방에 가입함. 그 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내의

	타지크자치 공화국이 됨.
1929년	단독으로 소연방 구성공화국이 됨
1991년	독립선언 -> 12월에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타지키스탄공화국 탄생
1997년	정부-반군간 평화협정 체결

자료 :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2009, p.120

이러한 내전에 따른 국토의 피폐화와 갈등의 기억, 수많은 전사상자의 발생 등, 내전은 타지키스탄의 현대사에 가장 강하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불행한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 이로 인한 국가 설립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발전 저해 등의 경험은 타지키스탄의 독재권력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를 강력한 반공의식이 지배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내전에 대한 연구나 그 후 국민의식의 변화와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내전의 경험을 통해 정치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안정 추구 등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독재에 대한 내전 경험의 긍정적 역할은 내전기간부터 현재까지 집권해오고 있는 라흐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웅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OSCE(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2006년 타지키스탄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라흐몬 대통령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내전을 종식시킨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들고 있다.<sup>20)</sup> 즉, 타지키스탄의 내전 경험은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방식의 사회적 의식을 유지해 오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역할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평화를 가져온 현대통령의 이미지와 맞물려 독재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d. 역사적 경험과 유산

이상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경험이 독립 후 독재권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타지키스탄은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여러 문명과 세력, 종교가 엇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했고 언제나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는 약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소연방에서의 탈퇴 후의 독립은 기나긴 타지인들의 역사속에서 최초의 독립국가의 수립이었고 국가 정체성 설립은 아직 진행형이다. 둘째, 타지키스탄은 소연방의 지배를 경험하면서 지역적, 인종적 갈등요인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이는 독립 후 내전의 원인이 된 지역세력간 갈등을 야기했고, 이는 현재까지 독재 권력유지의 강화요인이 되고있다. 지역세력, 즉 클랜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직후의 내전 경험은 타지키스탄 현대사에 가장 강렬한 경험이며, 타지인들의 내전의 기억은 사회적 의식과 현 대통령인 라흐몬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독재권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2. 사회·문화적 요인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 Clan(이하 클랜)과 이슬람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부분

20) OSEC, "2006 Presidential Election in Tajikistan-Interim Report", 2006.

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소연방 해체 후 5개국으로 나뉜 중앙아시아는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클랜과 이슬람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두 요소를 타지키스탄의 독재원동력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층의 입장에서 보면, 클랜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클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는 현 정권인 라흐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이에 반해 이슬람은 타지키스탄의 독재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개혁세력으로 분류되어 정권으로부터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라흐몬 정권은 이슬람부흥당과 타지민주당의 지원자들을 “민족정화”라는 미명아래 약 5,00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sup>21)</sup>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지난 1992년에 발발한 타지키스탄 내전의 주된 원인이기도 한 이 클랜과 이슬람이라는 두 요소가 타지키스탄 내에서 어떻게 시작하였고 변화하였는지, 또 독재원동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 CLAN

소연방 해체 후 중앙아시아 5개국은 체제전환이라는 혼란속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클랜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였다. ‘씨족’이라고도 말하는 클랜은 친족관계나 가상의 친족관계가 핵심이 되는 비공식적인 사회조직이며, 그 속에서 친족관계는 집단성원들의 유대와 결속을 일체화하는 기능을 한다.<sup>22)</sup>

[그림 1] 타지키스탄 클랜 지역도



자료 : 이채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사회운동: 타지키스탄의 해방당(解放黨)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학술대회논문집』, 2009, p.238; 고마츠 히사오 외, 이평래 역,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p.478 내용을 재구성

타지키스탄의 클랜은 친족관계보다는 지역을 위주로 나뉜다. 타지키스탄의 북부 지역을 나타내는 후잔트(Khojand) 주, 남동부의 쿨랍(Kulyab) 주, 파미르 산악지대부터 동부지역까지의 바다흐산(Badakhshanis) 주, 그리고 남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쿠르간 튜베(Kurgan -Tyube) 주가 대표적이다.<sup>23)</sup> 타지키스탄의 클랜은 지역에 따라 발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특히 북부 후잔트 주

21) 이애리아, 「타지키스탄의 민족분쟁과 고려인」, 『교포정책자료』, 1998, Vol.57, pp.140-161

22) 강봉구,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 정치(clan politics)’: 키르기즈스탄의 사례」, e-Eurasia, 2009, Vol. 11, pp.49



(과거 레니나바드Leninabad)와 동부 바다흐산 주의 극심한 경제적 차이는 내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후잔트 주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모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어 있었고,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여 다른 타지인들보다 우즈베키스탄과 문화, 경제면에서 연결고리가 더욱 강하게 묶여있다.<sup>24)</sup> 또한 이곳은 1940년 중반 이후부터 약 50년간 공산당 당 서기관을 배출하여 권력의 중심부에 있기도 하였다(<표1> 참조). 남동부의 쿨랍 주 역시 후잔트 주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시기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았고, 이 지역은 다수의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매우 투르크화되고 친소비에트적인 산업도시였다.<sup>25)</sup>

반면, 동부 파미르 산악지대인 바다흐산 주와 남서부의 쿠르간 튜베 주는 앞서 말한 후잔트 주와 쿨랍 주에 권력이 집중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달이 미비했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또한 1930년대 동부 지역 파미르 인들은 집단 면화 농장의 개발로 인해 남부로 강제 이주되기도 하였다. 바다흐산 주와 쿠르간 튜베 주는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권에 더욱 불만을 갖기도 하였고, 이렇게 서로 다른 클랜들의 입장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의 정치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타지키스탄이라는 하나의 국가에서 강력한 민족적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지방과 농촌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주의가 형성되면서 국가 내에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커다란 분열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6)</sup> 내전 중 한 때는 바다흐산 주와 쿠르간 튜베 주가 이끄는 개혁파가 나비예프(R. Nabiyev)를 미뤄내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다시 친공산주의자들의 정권이 수립되었고 쿨랍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I. 라흐모노프(Rakhmonov 이하 라흐몬)<sup>27)</sup>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sup>28)</sup> 이렇게 1992년을 시작으로 라흐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시작된 것이다.

라흐몬 대통령은 쿨랍 출신의 공산주의자로 친소비에트적인 인물이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후에도 그 국가들 내에서 친소비에트적 인물이 권력을 잡길 원했기 그러한 인물들을 지원하였다.<sup>29)</sup> 라흐몬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당시는 아직 내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라흐몬과 그의 정치적 기반인 후잔트-쿨랍 연합 클랜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바다흐산-쿠르간 튜베 주의 이슬람 개혁파를 제압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내전 이후 이슬람 부흥당과 같은 이슬람 세력을 인정하였다할지라도 이미 후잔트 주와 쿨랍 주가 거의 모든 정치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흐몬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다.

내전 종결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라흐몬 대통령과 그의 지지 기반들은 이슬람 세력이 정치 세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압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이 대량학살과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은 라흐몬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침묵하였고 그들의 장기집권은 계속 될 수 있었다.

클랜을 클랜으로만 저지할 수 있는 형태를 ‘클랜 정치 체제’라고 한다면 타지키스탄을 클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후잔트-쿨랍 클랜만이 너무 독보적이고 이를 저지할 만한 힘을 가진 다른 클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지키스탄의 독재원동력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지금은 클랜 정

23) Dilip Hiro, 「Inside central Asia」, Overlook Duckworth, 2009

24) Kathleen Collins,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2006, p.107

25) 이문영, 「현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화: 타지키스탄 내전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중앙아시아의 문명과 반(反)문명』, 2007, p. 178

26)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2009, p.125

27) 2007년 4월 14일 라흐몬 대통령은 러시아식 이름인 예모말리 라흐모노프에서 타지키스탄식인 예모말리 라흐몬으로 개명하였다.

28) 이문영, 2007, p. 172

29) S. Frederick Starr,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SILK ROAD PAPER June 2006;

치 체제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클렌은 타지키스탄의 독재 체제 유지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표 2] 역대 타지키스탄 지도자

타지키스탄 공화국 지도자			
서기관/대통령	재임기간	국적	클렌
압두카디르 무히디노프 (Abdukadir Mukhiddinov)	1924-25	부하라	부하라
보리스 토루피고(Boris Tolypigo)	1925-27	러시아	-
무민 혼드자예프(Mumin Khodjaev), 알리 실바니(Ali Shirvani) - 서기관 교체	1927-29	아제르바이잔	-
미르자 다우드 구세이노프 (Mirza Daud Guseinov)	1929-34	아제르바이잔	-
그리고리 브로이도 (Grigoryi Broido)	1934	러시아	-
수렌 사둔츠(Suren Shadunts)	1935-36	아르메니아	-
우룸바이 아수로프 (Urumbai Ashurov)	1936-37	타지키스탄	페르가나(파미르)
드미트리 프로토포포프 (Dmitryi Protopopov)	1937-46	러시아	
보보존 가푸르 가푸로프 (Bobojon Ghafur Gafurov)	1946-56	타지키스탄	후잔트
투르순보이 울자바예프 (Tursunboi Ul'jabaev)	1956-61	타지키스탄	후잔트
자보르 라술로프(Jabbor Rasulov)	1961-82	타지키스탄	후잔트
라흐몬 나비예프(Rakhmon Nabiev)	1982-86	타지키스탄	후잔트
카하르 마하모프 (Kakhar Makhkamov) - 서기관, 대통령	1986-90; 1990.12 -1991.08	타지키스탄	후잔트
카드레딘 아슬로노프 (Kadriddin Aslonov) - 대통령 대행	1991.09 -1991.11	타지키스탄	가름
라흐몬 나비예프(Rakhmon Nabiev) - 대통령	1991.11 -1992.09	타지키스탄	후잔트
아크바르쇼 이스칸다로프 (Akbarsho Iskanderov) - 연립 내각 의장, 대통령 대행	1992.09 -1992.11	타지키스탄	고르노 바다흐샨(파미르)
에모말리 라흐몬 (Imomali Rakhmonov) - 최고 소비에트 의장, 대통령	1992.11 - 1994.11; 1994.11부터 대통령	타지키스탄	쿨랍(당가린)

자료 : Compiled from Bol'shaia Sovetskaia Entsiklopediia; Malaia Sovetskaia Entsiklopediia, Kirgiskaia SSR Entsiklopediia; Uzbekskaia SSR Entsiklopediia; Tajikskaja Carlisle(1976), Rakowska-Harmstone(1974), Khamidov(2002), <www. centrasis.ru>, author interviews, (Kathleen Collins,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2006, p.110 재인용)

## b. 이슬람

이슬람은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 7세기경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타직인들은 10세기에 중반 이란과 투르크 왕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슬람화 되었는데, 이 당시는 비단길을 통해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였고 이로 인해 이슬람은 점차 확산되었다. 하지만 계속되던 이슬람의 서진은 13세기 몽고의 침입으로 중단 되었다. 이슬람의 확산은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고, 몽고가 물러간 후에도 러시아의 팽창에 따라 이슬람은 계속 핍박받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발전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비에트 시기 공산 정권이 반이슬람 정책을 표방하여 더 이상의 이슬람 확산은 금지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되기 전 소련시기의 이슬람은 약 70 여 년 동안 억압받아왔다. 그 후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슬람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소련의 의도적인 민족분할과 언어의 이질화에 의해 초기의 투르크족이라는 민족적 일체성과 투르크어라는 언어적 동질성을 상실한 채 반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인을 결속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sup>30)</sup>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슬람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부흥당(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IRPT)’이 독보적인 존재였다.

‘이슬람 부흥당’은 앞서 말한 바다흐산-쿠르간 튜베 주의 개혁파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정당이고 타지키스탄의 내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은 반(反)러시아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sup>31)</sup> 하지만 타지키스탄 정권은 이미 친러시아적인 정치 성향이 강했고, 이들을 향한 러시아의 지지 또한 강했다. 친러적인 후잔트 주와 쿨랍 주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독립 후까지 계속 러시아의 지원으로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 특혜를 얻었지만, 바다흐산 주와 쿠르간 튜베 주는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이슬람이 더욱 더 발달하게 되었고, 내전을 거쳐 이슬람 정당의 탄생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이슬람 부흥당’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합법화된 이슬람 정당으로 결성 당시 전체 무슬림의 이해를 대변하는 초국가적, 초민족적 정당을 표방하였다.<sup>32)</sup> 이슬람에 대한 지지도의 증가는 주로 구소련 독립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부패, 빈곤, 권위적인 정부의 억압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슬람은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세속적인 중앙아시아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sup>33)</sup> 타지키스탄은 초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슬람을 이용하였지만 점차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오른 이슬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비에트 시절 이슬람을 억압했듯이 다시 탄압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한 상황이다. 비록 ‘이슬람 부흥당’ 외에 다른 이슬람 정당들도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현 정권에 대항 할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였다. 현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이슬람을 탄압하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 타지키스탄 내에 과격 이슬람파가 아직 적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 경향 상 점차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앙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빈민국 중 하나로 경기 회복이 계속 불투명 상태이다. 이런 경기 불황에 마약 밀매와 같은 사회 문제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민심은 흉흉해지고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에 반한 세력으로 이슬람이 다시 부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수일지라도 과격 이슬람파는 아프가니스탄과 알카에다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분쟁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언제라도 타지키스탄 내에서 내전 불씨가 될 수 있다. 1994년 화해 의정서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

30) 이문영, 2007, p169

31) 정세진,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러시아 경향」, 『중앙아시아연구』, 2007, 12권, pp.71

32) 이문영, 2007, p175

33) 이채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사회운동: 타지키스탄의 해방당(解放黨)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학술대회논문집』, 2009, pp.231-268

스탄을 근거지로 하는 일부 이슬람 세력들은 작은 규모라도 계속 투쟁중이고<sup>34)</sup>,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슬람 부흥당’이 집권세력과 연계가 긴밀해지면서 부패와 각종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문제점을 외면함으로써 점차 이슬람정당으로서의 본래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흥당은 현 정부의 국정 참여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구로 전락하였고, 타지키스탄 무슬림의 진정한 고충을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대다수 무슬림들의 지지를 상실하였다.<sup>35)</sup>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슬람 부흥당’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부흥 운동에서 독보적인 존재이자 중앙아시아 최초 이슬람 정당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이슬람 세력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현 정권 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이슬람의 정치 세력화를 차단하였고,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할 공식 세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의 국민 약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향은 정통 이슬람과는 다른 ‘생활’ 이슬람이다.<sup>36)</sup> 국민 대다수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즉 과격 이슬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라흐몬 대통령은 이슬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타지키스탄의 세속화(secularism)’을 강조하고 있다.<sup>37)</sup> 내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은 정권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키스탄 내에서 이슬람 세력이 더욱 약화되고, 종교가 세속화 된다면 라흐몬 정권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방해할 요소는 사라질 것이다. 이슬람은 초기 중앙아시아 내에서 정체성과 정권 확립을 위해 이용되었지만, 점차 세력 확장으로 인해 정권에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서 중앙아시아 각 국 지도자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을 축소시켜야만 했고, 특히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해 내전을 겪은 타지키스탄에서는 탄압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원하는 현 라흐몬 정권 내에서 이슬람 부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반짝’ 활동일 뿐 곧 사그라질 것이고, 잠시지만 한 때 정권을 잡았던 예전과 같은 이슬람의 황금기는 없을 것이다.

### 3. 법적 / 정치적 요인

#### a. 법적요인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앞서 역사, 문화 종교적요인을 연구해 보았다.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국가 정치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지키스탄 헌법을 살펴봄으로써, 타지키스탄 법이 독재권력 유지 또는 강화에 기인하고 있는지 밝혀 보려고 한다. 타지키스탄 헌법의 경우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과 삼권분립, 지방정부와 정당 등의 활동 영역과 권리 보장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적인 독재의 그림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의회에 경우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으며 의회에는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타지키스탄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수상임명

34) Ghonchen Tazmini, 「The Islamic revival in Central Asia: a potent force or a misconception?」, Central Asia Survey, Philadelphia, 2001 Vol. 20 No1 pp.63-83

35) Baran, Zeyno, 「Hizb ut-Tahrir: Islam's Political Insurgency」, The Nixon Center, 2004, pp.78-79, 113-114(이체 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사회운동: 타지키스탄의 해방당(解放黨)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학술대회논문집』, 2009, pp.231-268에서 재인용)

36) 김근필, 「중앙아시아 선교접근 전략을 위한 이슬람교 이해」,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p.54

37) 외교통상부, 「타지키스탄 개황」, 2008. 12

을 승인할 권한을 보유하며, 대통령이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회제의 성격이 가미되었다.<sup>38)</sup>

특징적인 것은 상원의원의 1/4을 대통령의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25명의 상원의원 중 8명이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의회 속에서의 일정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법률과 의결의 채택, 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진 의회 속에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 세력이 존재한다면 대통령 의사결정과 정책 진행 및 법률안의 비준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연장 역시 주목해야하는 부분이다. 2003년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으로<sup>39)</sup>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었다. 헌법 개정 후 라흐몬은 2006년 치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임기를 2020년까지 늘리게 되었다. 또한, 헌법 속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즉 공정한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법에 의거해 타지키스탄 선거는 선거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선거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타지키스탄의 선거 위원회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지역 상원 선거 관리 위원회, 지역 하원 선거 관리 위원회, 투표소 관리 위원회로 나누어 관리 된다. 하지만 실제 2006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의 불공정과 투개표 과정의 부정 의혹을 받기도 했다.<sup>40)</sup>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헌법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헌법을 기초로 월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선거의 경우는 세분화된 선거 관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공정성을 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법을 벗어나 실제 정치 권력세력과 구체적인 정당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 중심적인 정책의 시행과 권위주의의 강화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b. 정치적 요인

### 타지키스탄의 정치세력

1991년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그 해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라흐몬 나비예프(R. Nabyev)는 공산당의 강경파로써 친소비에트 경향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2년 나비예프 정권에 반발한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내전이 일어났다. 내전 중 나비예프는 강제로 사임되고 잠시 동안 친이슬람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공산계열인 에모말리 라흐몬(I. Rahmon)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라흐몬 대통령은 나비예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소비에트 경향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 즉 클렌 역시 친소비에트 경향인 후잔트-쿨랍 클렌이었다.

하지만 아직 내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산주의 계열의 대통령이 선출되자 분쟁은 더욱 거세졌고, 라흐몬 정권에 반대하는 ‘통합 타직 야당(United Tajik Opposition, UTO)’가 결성되었다. ‘통합 타직 야당’은 당시 영향력이 컸던 ‘이슬람 부흥당(Islamic Renaissance Party of Tajikistan, IRPT)’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다흐산 지역당의 지지자들이 모인 거대 그룹이었다.<sup>41)</sup> 이 둘의 분쟁은 엄청난 사상자를 낸 후 종결하였지만, 내전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입었을 뿐 라흐몬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소비에트 시기부터 거의 대부분의 정치 권력은 이 후잔트-쿨랍 클렌이었기 때문에 다른 클렌 출신들,

38) 김인성,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집.

39) 헌법 제 4 장 65조.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국민에 의해 직접, 보통선거와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7년이며 대통령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40) OSEC의 2006년 감시 리포터에서 타직 정부가 선거 당시 미디어를 통제하였고, 네명의 후보들 역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였다고 지적했다. OSEC, "2006 Presidential Election in Tajikistan-Interim Report", 2006.

41) Kenneth de Figueiredo, 「Tajikistan: Presidential elections November 2006」, Nordem report, 2006

특히 이슬람 세력은 타지키스탄 내에서 권한이 없었다. 단, 이슬람 정당인 ‘이슬람 부흥당’은 내전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라흐몬 정권의 반이슬람 정책과 맞물려 점차 힘을 잃었고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현 정권 하에 복속되어 가고 있다.

2005년 총선 당시 타지키스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정당은 6개로 ‘국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PDP)’, ‘이슬람부흥당’, ‘공산당(Communist Party, CP)’,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DP)’, ‘민주당(Demoncratic Party, DP)’, ‘사회당(Socialist Party, SP)’이고<sup>42)</sup>, 2006년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속한 ‘경제개혁당(Party of Economic Reform, ERP)과 ‘농민당(Agrarian Party, AP)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친 정부 세력이고, 실제로 2006년 대선 당시 라흐몬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현재 타지키스탄의 여당은 신공산당이라고도 불리는 국민민주당으로<sup>43)</sup> 최근 2005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라흐몬 대통령 장기 집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라흐몬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이 카리모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독재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부 후잔트 출신들이 라흐몬 대통령에 반대하고 있고, 해마다 일어나는 폭탄 테러<sup>44)</sup>가 라흐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이 테러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하지만 타지키스탄에는 현재 라흐몬 대통령에 대항할만한 세력이 결집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최근 4~5년간 경제 상황도 다소 개선되었으며, 내전을 경험한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도 아프간 문제 등과 관련하여 타지키스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기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45)</sup>

#### 타지키스탄의 주요 정치인과 세력관계

1992년을 시작으로 라흐몬의 대통령 집권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다. 2006년 대선에서 무려 80%에 지지율로 당선되고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라흐몬은 쿨랍 주 출신으로 내전 당시 후잔트-쿨랍 연합 클랜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 연합 클랜과 라흐몬은 내전을 종결시키고 타지키스탄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지만 라흐몬이 쿨랍 출신들로 내각을 구성함에 따라 이 연합 클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후잔트 출신들이다. 따라서 라흐몬 대통령이 계속해서 쿨랍 출신들 위주로만 구성된 내각을 유지할 경우 후잔트 출신과 쿨랍 출신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보다 더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현 총리인 오킬 오킬로프(Oqil Oqilov)는 1999년 임명된 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지낸 오킬로프는 라흐몬 대통령과는 달리 후잔트 출신인데 이것은 라흐몬 대통령의 후잔트와 쿨랍의 분쟁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반해 현 외교부 장관인 함로혼 자리피(Hamrokhon Zarifi)은 라흐몬 대통령과 같은 쿨랍 출신으로 2006년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대표 야당 중 하나인 ‘이슬람 부흥당’은 사이드 압둘로 누리(Said Abdullo Nuri)가 당

42) Kenneth de Figueiredo, 2005

43) 김대성,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 1999

44) 2005년 이후 수도 두산베, 2006년 대법원 건물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 2007년 11월에는 대통령궁 근처 회의장 밖에서 폭탄 폭발

45) 외교통상부, 2008.

수로 오랫동안 정당을 이끌어왔지만 2006년 사망하면서 당권을 위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당수인 마흐마드루지 이스칸다로프(Mahmadruzi Iskandarov)는 망명 생활에서 납치된 후에 테러리즘 명목으로 장기간 (23년)의 수감형을 받았고 2006년에는 그의 당이 공식 목록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도당 그룹 '바탄'에 의해 대체되었다.<sup>46)</sup> 이러한 결과들로 야당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여당과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되는 것이다.

각 주의 수장들은 헌법 상 대통령인 라흐몬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수도만이 아닌 전 지역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 4. 경제적 요인

##### a. 타지키스탄의 경제 개황

한 국가의 경제적 환경은 정치 행위자의 정치활동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반론은 타지키스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 후 타지키스탄의 경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자원 보유국과는 다른 경제환경을 겪어왔다. 타지키스탄은 구소련 시절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정도로 독자적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가장 낙후된 경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GDP기준으로는 최빈국이다.<sup>47)</sup> 타지키스탄의 경제환경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력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전 종료 후 타지키스탄의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인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sup>48)</sup>

소연방 시절부터의 높은 경제 의존도와 내전을 통한 산업 기반의 붕괴, 에너지, 광물자원의 부재 등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까지 몰도바와 함께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알루미늄과 면화 수출을 기반으로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1년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긴축재정과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로 7%대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의 경제상황은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데,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62%가량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면화 생산도 재배인프라 낙후와 기후 분순으로 하락세에 있기 때문이다.<sup>49)</sup>

##### b. 경제 상황과 독재

타지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장기집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권위주의 장기집권국,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나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독재권력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은 정치적으로는 자원부국이 국가의 자원을 이용한 지대추구행위와 이에 따른 자원 수출을 통한 분배구조의 왜곡을 통해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권력의 장기화를 형성 및 강화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한 이익을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적 분배를 통해 국민에게 분배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Taxation effect가 나타나고 지배 엘리트층은 지대를 추구하는 것이 전형

46) Коммерсантъ, 「Таджикская оппозиция потеряла лидера」, 2006. 08. 10, 검색일 2009. 10. 28. <http://www.kommersant.ru/doc-y.aspx?DocsID=696659>

47) 이재영, 박상남 편저, 「중앙아시아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86.

48) 「타지키스탄 개황」, 2008, p.32

49) 이재영, 박상남 편저, 2007, pp.90-91.

적인 현상인 것이다.<sup>50)</sup>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존재는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제외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3]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억달러)	N/A	N/A	16	21	23	28	37
1인당 GDP(달러)	N/A	N/A	252	327	353	430	514
GDP 성장률	10.2	9.1	10.2	10.6	6.7	7.0	7.8
재정수지/GDP(%)	0.1	0.7	-1.8	-2.4	-3.8	0.4	1.0
소비자물가상승률(%)	38.6	12.2	16.3	7.1	7.8	11.9	13.1
환율(달러, 연말)	2.55	3.00	2.96	3.04	3.20	3.43	3.44
경상수지(백만달러)	-5.7	-1.4	-5	-57	-19	-21	-459
상품수지(백만달러)	N/A	N/A	-120	-135	-323	-351	-987
수출(백만달러)	652	737	906	1,097	1,108	1,315	1,486
수입(백만달러)	688	721	1,026	1,232	1,431	1,666	2,456
서비스수지(백만달러)	N/A	N/A	-33	-90	-105	-260	-443
외환보유액(백만달러)	94.3	N/A	112	158	168	175	206
총외채(백만달러)	N/A	N/A	1,152	910	1,022	866	1,119
단기외채(백만달러)	N/A	N/A	81	0	84	N/A	N/A
총외채잔액/GDP(%)	N/A	N/A	7.2	6.6	4.5	N/A	N/A

자료 : 이재영, 박상남 편저, 「중앙아시아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타지키스탄 개황」, 외교통상부, 2008.12; ABD 2008. 내용을 종합

하지만 타지키스탄의 자원 부재라는 경제환경이 권위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혹은 강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사회·정치적, 문화적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역설적으로 다른 사회·정치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지키스탄의 자원 부재는 오히려 독재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내전으로 인한 산업 기반의 파괴와 알루미늄, 면화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같은 경제 내적인 요소, 내전의 기억으로 인한 정치적 안정 추구하고 독재 권력자의 이미지와 같은 사회적 요소, 현 집권세력에 반대할만한 정치세력의 부재와 같은 정치적 요소, 러시아 등 외부 국가의 지원과 같은 국외요소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배엘리트가 지대획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최대치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할 때,<sup>51)</sup>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의 타지키스탄에 존재하는 지대의 양이현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추구할만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권력의 공백상태나 집권세력의 권력의 공고화 정도, 사회환경 변화의 정도 등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정도는 변화하겠지만, 타지키스탄의 상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환경이 반대세력의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어 다음장에서 살펴볼 외부환경적 요소 역시 현집권세력의 안정성 유지를 원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더욱 더 공고해질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50) 양운철, 「국가 독점과 렌트 추구행위-북한의 사례」, 『세종정책연구』, 2006, 제2권 2호, pp.174-176.

51) 소병희, 「공공선택론의 이해와 정책학 분야에서의 응용」,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2호, 1996, p.279.



지하경제규모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연구방법과 연구자에 따라 조금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타지키스탄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7년 공식 GDP 대비 91%(96년 137%)로 중앙아시아 국가 5개국 평균 66.4%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sup>52)</sup> 지하경제(Shadow Economy)는 공식 경제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영역으로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와 불법적 경제(Illegal Economy)를 모두 포함한다. 즉, 타지키스탄에서는 정부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경제규모가 공식경제규모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표 4] 1995-97년 공식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국가	1995	1996	1997
카자흐스탄	46	33	27
키르기스스탄	261	199	180
타지키스탄	111	137	91
투르크메니스탄	22	25	N/A
우즈베키스탄	6	15	11

자료 : Yair Eilat, Clifford Zinnes, 「The Evolution of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Consequences for Economic Growth and Donor Assistance」, CONSULTING ASSISTANCE ON ECONOMIC REFORM II, 2000, p.28.

## 5. 국제적 요인

타지키스탄은 지금까지 111개 이상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지역 갈등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개가 넘는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라흐몬이 타지키스탄은 미국, 유럽과 반테러를 지향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특히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제적 협력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의 외교정책은 “열린 문(Open Doors)”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평화적 협력과 함께 모든 정책은 자국의 이익에 바탕을 둔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관계 속에서 타지키스탄의 권위주의적 권력 유지를 돕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과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의 상승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타지키스탄을 중요 군사협력 기지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지리적 인접관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라흐몬의 권력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해 보려한다.

### a.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기타 구 소련 국가들이 그렇듯, 타지키스탄 역시 러시아에 군사, 경제적으로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의 그 의존성이 두드러지는데,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안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타지키스탄 내 군사 기지를 허용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2) Yair Eilat, Clifford Zinnes, 「The Evolution of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Consequences for Economic Growth and Donor Assistance」, CONSULTING ASSISTANCE ON ECONOMIC REFORM II, 2000, pp.27-28.

타지키스탄 내에서 러시아 자국의 군사력 강화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째, 러시아에 있어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서쪽 국경의 게이트로 안보를 위해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 분리세력에 대한 경계를 들 수 있다. 독립이후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슬람 분리 주의자의 움직임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러시아는 현재 중앙아시아 최고 지도자들의 정권 유지를 돕는 것이 곧 분리 세력에 대한 경계한다.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반정부 세력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 유지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군사적 협력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군사적 위치를 확실히 하여, 서방세력, 특히 미국의 중앙아시아 침투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53)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군사협력을 강화해 간다. 2003년 4월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은 두산베를 방문하여 타지키스탄과의 신군사협약을<sup>54)</sup> 체결한다. 또한, 2004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군사기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타지키스탄 부채의 2억5천만 불을 탕감해주고 5천만 불을 에너지자원 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한, 수자원 개발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라흐몬은 러시아가 타지키스탄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했었지만, 러시아는 그의 정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쉽게 받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타지키스탄 협조는 앞으로 재현될 수 있는 폭동이나 반란의 위험에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 푸틴은 러시아 군으로부터의 도움은 라흐몬의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55)</sup>

러시아에 있어 이슬람 세력에 대한 경계, 안보문제 해결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에 침투한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 라흐몬 대통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흐몬 대통령 또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대비와 군사협력과 함께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 b. 미국과 타지키스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1 테러 이후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는 높아졌다. 특히, 미국에 있어 군사 전략적으로 협력이 꼭 필요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타지키스탄 이였을 것이다.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기는 했지만, 타지키스탄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충분히 보였다. 2001년 9월 25일부터 타지군은 미국 공군에게 타지키스탄 영토내의 기지 사용과 합동훈련을 허락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타지키스탄을 "아프카니스탄의 군사 안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며 마약운반과 테러 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2009년 미국 중부군 사령관 데이비드 페드라우의 타지 방문 시, 인내하는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의 타지키스탄의 협조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동일 방한에서 데이비드 사령관은 아프카니스탄 작전 수행을 위한 물자의 운반 통로로 타지키스탄과 협의했다.

군사적 지원을 넘어, 미국은 타지키스탄의 내전시에도 음식과 의료품을 지원했으며, 9.11 테러 직후 군사 협력과 함께 미국은 타지키스탄에 대해 매년 일정 수준의 투자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sup>56)</sup>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은 타지키스탄에 7억786만 불을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했다. 2009

53) Leszek Buszynski, *Russia's new role in central asia*, 2005. 560p.

54) New Status of Forces Treaty, 2003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201사단을 강화하고(군인의 증대), 공군기지의 강화, 타지군사장비의 현대화를 합의했다.

55) Leszek Buszynski, 2005. 560p.

56) 2007년 미국은 국경선 안보 지원 프로그램으로 타지키스탄에 국경 인프라 시설과 장비의 지원을 위해 2천만불을 지원했다.

년 미국의 타지키스탄 지원 예산은 약 4천 7백만 불이며, 2010년 예산은 5천 2백만 불이다.<sup>57)</sup>

이러한 원조는 타지키스탄 정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낮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타지키스탄에 국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폭동으로 인한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카니스탄을 경계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타지키스탄의 국내 경제,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원조를 통한 국내 경제상황과 정치의 안정은 현재 라흐몬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 c.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타지키 인구의 15.3%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점에서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크와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 내전 당시 러시아와 함께 깊숙이 관여했던 국가 중에 하나이다. 물론, 카리모프의 내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지는 구조적 모순의 해결보다는 그러한 모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혐의가 더 짙으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려는 카리모프의 정치적 야심이 컸다는 주장이다.<sup>58)</sup>

1994년 라흐몬은 "타지키스탄 외교정책의 일순위는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은 것도, 카리모프가 개인적으로 승인한 우즈베크인이었다는 것에서도 타지키스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국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반정부 성향을 가진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갈등의 요소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오쉬지방과 페르가나 계곡을 둘러싼 영토 문제, 우즈베크인들은 타지키스탄을 구소련 당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억지로 떼어낸 인공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갈등의 요소는 타지키스탄의 국내 정치에 불안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미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러시아 역시 자신의 국가 안보와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타지키스탄의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국 역시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군사 작전을 위해 타지키스탄 지역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무력 충돌 경계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타지키스탄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안정화로 얻는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권위적 독재집권의 디딤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V. 국내적 거버넌스 확립과 장기집권 강화 정책

### 1. 정치관련 법규와 선거<sup>59)</sup>

미국은 이 지원을 통해 마약 거래 장소로 부상하고 있는 타지키 국경선의 위협을 줄이고, 국경선에서의 타지키스탄의 국가 권리를 찾아주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57) Jim Nichol, Tajik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1p.

58) 이문영, 현대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파: 타지키스탄 내전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2004. p.188

59) 타지키스탄의 정치 및 선거 관련 개별 법규와 공식 선거결과 집계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여기서는 OSCE/ODIHR자료와 워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1999년, 2006년 대선과 2000년 2005년 총선 결과를 다룬다.

타지키스탄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법적 근거를 두루 갖추고 있다. 먼저 타지키스탄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각 정당은 법무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당 조직은 각 행정구역 별로 갖출 수 있으나 지방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각 정당이 동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선거운동시 동등한 기회를 각 정당에 부여해야한다<sup>60)</sup>.

한편 타지키스탄의 선거법은 내전 이후 국가화해위원회(the Commission on National Reconciliation)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여러 반대에 따라 1999년 10월에야 입법됐다.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유럽안보협력기구/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국(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SCE/ODIHR)의 조언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원(Majlisi Namoyandagon)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한다. 1997년 반군과의 합의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the Central Commission on Elections and Referenda ; 이하 CCER)에 반군연합(United Tajik Opposition ; 이하 UTO)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원인 Majlisi Milli는 전체 3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8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25명은 지방 의회에서 선출된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하원인 Majlisi Namoyandagon는 63명으로 구성되며 41명은 지역구별 단순 다수제로, 22명은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지역구 선거는 반드시 1명의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자가 다음 라운드를 진행한다.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 지금까지 세번의 총선과 세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이 중 1999년 대통령 선거에서 라흐몬 대통령은 96.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2006년에는 79.3%의 지지를 얻어 3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표 5] 1999, 2006 대통령 선거결과

1999		2006	
후보	득표율(%)	후보	득표율
Emomalii Rahmon	96.0	Emomalii Rahmon	79.3
Davlat Usmon	2.0	Olimzon Boboyev	6.2
		Amir Karakulov	5.3
		Ismoil Talbakov	5.1
		Abdualim Gafforov	2.8

자료 : 위키디피아

2000년과 2006년의 국회의원 선거 역시 형식적으로는 대체로 경쟁적인 선거형태를 띠었지만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1994년 라흐몬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민주당이 64.91%의 득표율을 보였고, 여당성격인 공산당이 20.39%의 득표를 올려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사회당, 이슬람 부흥당의 결과는 모두 합쳐야 20%가 되지 않았으며, 이슬람 부흥당만이 7.31%의 득표를 올려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61)</sup>

60) OSCE/ODIHR, 「Final report o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Tajikistan」, 27 February 2000.

[표 6] 2000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Majilisi Namoyandagon; 비례대표)

Name of party	Number of votes	Percentage	Seats
정의당 Adolathoh(PoJ)	35,414	1.32	0
민주당(DP)	94,963	3.54	0
공산당(CP)	547,076	20.39	5
이슬람부흥당(IRP)	196,105	7.31	2
사회당(SP)	37,728	1.22	0
국민민주당(PDP)	1,741,540	64.91	15
Against all	22,322	0.83	
<b>TOTAL</b>			<b>22</b>

자료 : OSCE/ODIHR, 「Final report o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Tajikistan」, 27 February 2000.

2005년 선거는 2월 27일~3월 12일 까지 실시됐으며 170명의 후보자가 41석의 단순다수 의석에, 61명의 후보자가 6명의 후보자가 정당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민주당이 62명, 이슬람 부흥당이 37명, 공산당이 20명 등록했으며, 8명의 무소속 의원이 출마했다.

[표 7] 2005년 선거 결과(Majilisi Namoyandagon; 비례대표)

Parties	Votes 1st round	득표율	의석수
국민민주당	1,666,909	64.51%	49
타지키스탄 공산당	533,066	20.63	4
이슬람 부흥당	193,532	7.48	2
기타	190,412	7.36	
Total (turnout %)	2,583,919		63

OSCE/ODIHR, 「Final report o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Tajikistan」, 27 February, 2005

## VI. 결론

지금까지 타지키스탄의 독재 강화요인을 살펴보았다. 역사, 사회·문화, 법, 정치, 경제 및 대외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개별적 요인들이 독재체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각 요소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표 8] 타지키스탄 독재 강화요소의 영향

요소	내용	영향
역사적 요소	첫 민족국가 수립에 따른 약한 국가 정체성	+
	소련지배의 유산	+

61) 전술한 바와 같이 타지키스탄의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으나 선거구 선거결과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지 않다.

	독립직후 내전의 경험	+
사회·문화적 요소	클랜(지역세력)의 영향력	+
	반정부 성향의 이슬람 세력	-
법적요인	형식적 민주주의 법체계 확립	-
	헌법 등 법률상 일부 대통령 권한 강화	+
정치적 요인	영향력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부재	+
경제적 요인	취약한 경제상황과 자원의 부재	+/-
대외요인	주변 이해관계국의 타지키스탄의 안정 추구	+

이상과 같이 영향요인은 대부분 라흐몬 현 대통령의 집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그 집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sup>62)</sup> 라흐몬 대통령 집권하의 타지키스탄은 신생국가로서 약한 국가(weak state)의 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마땅한 반대세력도 존재하지 않지만, 선거 조작의혹<sup>63)</sup>, 언론 통제 및 인권탄압<sup>64)</sup> 등 정권 유지를 위한 국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집권 후 세 번에 걸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꾸준히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를 차지해 왔으며 각종 정책과 인사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재 강화 요소들의 작용은 상호 연관적이고 보완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60%가 빈곤선 아래 위치<sup>65)</sup>하고 있는 등, 라흐몬 대통령의 독재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스탠 5개국중 가장 저발전된 국가이며, 생활수준도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sup>66)</sup> 또한 GDP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등 해외 노동을 통한 송금이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경제 기반이 취약하며 전력은 우즈베키스탄에 의존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등 해외송금의 많은 양을 차지하던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송금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는 전력공급과 수자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도 올해들어 경제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미국에 가까워지는 등 내외로 아직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요소들은 이러한 현안적 요소들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상기한 현안적 요소들의 양상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현안적 요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오랫동안 작용할 것인지는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본 논문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타지키스탄의 장기 집권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타지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전되지 못했으며, 매력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해 여러 자료들이 빈약하고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러한 결론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자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한 학문적 기여도라 할 수 있다.

62) 강봉규, 「유라시아 인물들 : 라흐몬, 에모말리」, 『E-urasia』, vol.15, 2009, p.38.

63) OSEC, 2006. ; Newyork Times, 「Media Muzzled and Opponents Jailed, Tajikistan Readies for Vote」, 2006, 4.

64)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political right index에서 6점을, civil right index에서 5점을 받았다. 이 index는 1에서 7까지의 scale로 1이 가장 자유도가 높음을, 7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 자유도에 대해서 프리덤 하우스는 빈사상태(moribund)라고 표현했다.(<http://www.hrw.org/en/> : <http://www.freedomhouse.org/> )

65)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검색일 2009.10.29.

66) 2007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스탠 5개국 중 가장 낮은 122위에 위치해 있다.

## 참고자료

-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National Identity between Tradition and Reflexive Modernisation: the Contradictions of Central Asia, Nationalities Papers, Vol, 3, No. 1, 2001.
- Dilip Hiro, 「Inside central Asia」, Overlook Duckworth, 2009
- Ghonchen Tazmini, 「The Islamic revival in Central Asia: a potent force or a misconception?」, Central Asia Survey, Philadelphia, 2001 Vol. 20 No1.
- Jim Nichol, Tajik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 Kathleen Collins,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2006.
- Kenneth de Figueiredo, 「Tajikistan: Presidential elections November 2006」, Nordem report, 2006
- Leszek Buszynski, Russia's new role in central asia, 2005.
- Mariya Chelova, 「Explaining regime outcomes in the former Soviet Union(FSU) states : a structure-based model」, Humboldt Univ., 2008.
- OSEC, "2006 Presidential Election in Tajikistan-Interim Report", 2006.
-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 Frederick Starr,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SILK ROAD PAPER June 2006;
- Tomas B. Pepinsky, 「Durable Authoritarianism as a Self-Enforcing Coalition」, Univ of Colorado-Boulder. 2008.
- Yair Eilat, Clifford Zinnes, 「The Evolution of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Consequences for Economic Growth and Donor Assistance」, CONSULTING ASSISTANCE ON ECONOMIC REFORM II, 2000.
- 김인성,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집.
- 강봉구, 「유라시아 인물들 : 라흐몬, 에모말리」, 『E-urasia』, vol.15, 2009,  
 \_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 정치(clan politics)’: 키르기스스탄의 사례」, e-Eurasia, 2009, Vol. 11,
- 고마츠 히사오, 이평래 역,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2005, (서울 : 소나무),
- 김근필, 「중앙아시아 선교접근 전략을 위한 이슬람교 이해」,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대성,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 1999  
 \_ 「소련 해체이후 강대국의 現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중동학회, 1999,
- 소병희, 「공공선택론의 이해와 정책학 분야에서의 응용」,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2호, 1996,
- 양운철, 「국가 독점과 렌트 추구행위-북한의 사례」, 『세종정책연구』, 2006, 제2권 2호,  
 외교통상부, 「타지키스탄 개황」, 2008. 12
- 이문영, 「현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화: 타지키스탄 내전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중앙아시아의 문명과 반(反)문명』, 2007,
- 이문영, 현대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정치세력화: 타지키스탄 내전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관계, 2004.

- 이애리아, 「타지키스탄의 민족분쟁과 고려인」, 『교포정책자료』, 1998, Vol.57,
- 이재영, 박상남 편저, 「중앙아시아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이채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사회운동: 타지키스탄의 해방당(解放黨)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학술대회논문집』, 2009,
- 장병옥, 「타지키스탄 내전과 평화과정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27권 2호, 2008,
-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2009,
- \_ 「타지키스탄의 민족 정체성연구 -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학국이슬람학회논총, Vol.18, issue 1, 2008,
- \_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러시아 경향」, 『중앙아시아연구』, 2007, 12권,
- 한병진,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2009, Vol.15, issue.1,
- Коммерсантъ, 「Таджикская оппозиция потеряла лидера」, 2006. 08. 10, 검색일 2009. 10. 28. <http://www.kommersant.ru/doc-y.aspx?DocsID=696659>
-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Human Right Watch : <http://www.hrw.org/en/>
- Freedom House : <http://www.freedomhouse.org/>